

1930년대 소설문학에서 반일의식구현의 형상적특성

은 종 섭

우리 인민은 일찌기 해쑈는 동방에서 반만년 오랜 세월 자랑찬 역사를 수놓아오면서 자기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담은 애국애족적인 문학을 즐기치게 창조발전시켜왔다.

우리 문학의 애국애족적인 전통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던 민족수난기에도 끊어지지 않았다. 반일애국정신은 일제의 조선강점직후부터 민족수난기의 전기간 우리 문학에 시종일관 구현되어왔다.

일제강점시기 반일의식이 구현된 문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지 않게 이야기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대체로 가요들이었고 소설문학에 구현된 반일의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었다. 소설문학에서 반일의식이 하나의 주제사상적경향으로 잘 안겨오지 않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반일투쟁대오안에서 혹은 인민들속에서 구두로 불리워진 가요와는 달리 일제의 검열통제속에 합법적으로 발행된 잡지나 신문에 실린 소설에서 반일의식을 구현하는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1930년대는 일제의 과쑈적탄압이 보다 가혹하게 감행되던 때였다.

1931년에 만주를 강점하고 1937년에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대륙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일제는 식민지조선을 저들의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려고 꾀하면서 문학부문에서도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저항해나서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작가들의 조직인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략칭 《카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일제는 1931년과 1934년 《카프》검거소동을 련이어 벌리던 끝에 1935년에는 동맹 자체를 강제적으로 해산해버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카프>를 해산할수 있었지만 조선문학의 시종일관한 저항정신과 애국애족의 련전에서 싱싱하게 싹트고 자라온 그 문학의 명맥은 도저히 끊어버릴수 없었다.》(《김일성전집》 제99권 52페이지)

일제는 《카프》의 해산으로 진보적작가들의 조직적인 문학활동을 없앨수는 있었지만 민족적량심을 가진 작가들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창작활동을 막아낼수는 없었다.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과쑈통치에 저해를 주는 진보적인 문학활동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특히 문학작품에 구현되는 반일의식에 대해서는 그 사소한 표현도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댔다. 하지만 그 어떤 가혹무도한 언론탄압으로도 작가들의 가슴속에 타번지는 반일의식의 불길을 꺼버릴수는 없었으며 자기의 창작으로 겨레의 가슴에 반일정신을 심어주려는 애국적지향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작가들은 일제의 가혹한 언론탄압망을 뚫고나갈수 있고 짓밟힌 조선사람의 가슴속에 반일의식을 복돋아줄수 있는 효과적인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였으며

여러가지 형상수법을 탐구하여 자기의 창작적지향을 실현하였다.

론문에서는 1930년대 소설문학에 반일의식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것을 형상수법의 견지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한다.

이 시기 신문잡지들에 실린 소설에서 반일의식이 구현된 작품들을 형상수법의 견지에서 살펴보면 우선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속하는 문제들을 설정하고 그로 인하여 조선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려낸것이 눈에 뜨인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정면에서의 비판으로서 사소한 반일적요소의 표현도 무자비하게 탄압당하던 당시의 엄혹한 조건에서 참으로 담대한 시도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작가들은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작품에 제기하고 형상으로 실현하였으며 언론탄압의 철폐를 해치고 그것을 공개출판물에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박승극의 《평범한 이야기》를 들수 있다.

단편소설 《평범한 이야기》는 1935년 12월 잡지 《신인문학》 10월호에 《항간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작품이다.

소설의 기본내용은 《색의장려》와 《자경단》때문에 주인공이 겪는 고통과 비극으로 엮여져있다.

《색의장려》란 조선사람들이 조상대대로 입어오던 흰옷 대신 색깔옷을 입도록 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하나이다. 흰옷은 단순히 조선사람들이 즐겨입는 옷이 아니라 민족의 상징으로 여기는것이다. 조선사람들이 자신을 백의민족이라고 하고 외세에 항거하여 투쟁에 나서면서 집단적으로 흰옷단장을 하는 리유는 여기에 있다. 《색의장려》는 조선사람들의 이러한 민족성을 없애버리려는 민족말살책동의 한 고리였다.

《자경단》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경찰의 보조역으로 조직된 기구로서 밤에 돌아가며 순찰경비를 서는것이 기본이였다. 당번 서는 날에 본인이 어떤 리유로 없거나 앓으면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하며 인부의 채용비로 돈을 바쳐야 했다.

소설은 주인공 성삼이 면사무소에 호세를 내려 갔다가 색의를 입지 않았다고 흰옷에 빨간 잉크벼락을 맞고 세금도 바치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성삼은 옷차림때문에 말썽이 생길것 같아 면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고추서기》 최정환에게 흰옷을 입고 오게 된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고추서기》는 애당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 큰 병에 쏙힌 붓을 빼어 잉크를 함부로 뿌려준다.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한 성삼은 너무도 격분하여 어째서 남의 옷을 이렇게 버려놓는가, 우리네 같은 가난한 농군은 두루마긴 일상 입지 않아서 그냥 두었던것을 급해서 그냥 꺼내입구 온건데 이게 무슨 꼴인가고 들이대며 선지피를 뿌린것 같은 빨간 잉크물이 채 마르지 않은 두루마기자락을 걸어잡고 흥분에 떠난다. 그러나 관청것들은 도리어 호통을 치며 잔말 말고 집에 가서 색의를 입고 오라, 관청의 명령에 복종치 않는자는 아무렇게 한대도 일없다고 피대를 돌군다.

성삼은 분을 삭이고 《납입고지서》와 돈을 내밀었으나 면장과 《고추서기》는 받지 않고 밀쳐버린다.

분이 치밀고 손이 떨렸지만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았다고 차압을 할것이 두려워 사무소에서 보이지 않는 앞산에 가 두루마기를 벗어 배에다 두르고나서 다시 면사무소로 갔으나 거기엔 이미 아무도 없었다. 할수없이 서기네 집을 찾아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울화를 참아삼키며 고지서와 세금을 그의 앞에 내던지고 돌아온다.

소설의 그다음에 펼쳐지는 사건 역시 성삼이 색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이다.

이튿날 성삼은 가마니를 팔러 오미장에 갔다가 색의를 입지 않은것으로 하여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성삼과 마을농민들은 가마니를 팔고 장을 보려고 20리나 되는 길을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첫새벽에 떠난다.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맨 나중예야 가마니검사를 해주어 성삼이 등은 해가 서산에 기울어져서야 가마니를 바치고 전표를 받아 대금을 찾고는 요기도 못하고 집으로 향하였다.

이날 늦게 온것으로 하여 성삼은 《자경단》에서 조직한 순경에 빠지게 된다.

면주재소의 수석순사부장이 순경을 시찰하러 왔다가 성삼이가 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여 순경에 빠진것을 알고는 당장 아들을 대신 시키라고 호통친다. 그리하여 고뿔에 걸려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있던 그의 아들 용태가 억지로 끌려와서 걸핏하면 사람들의 따귀를 치군 하여 《이따귀》별명이 붙은 순사부장한테서 따귀를 대어섯번이나 련거퍼 얻어맞고 별로 먼 곳까지 순경을 돌게 된다. 그 어혈로 하여 용태의 병은 날로 더 심해만 가고 끝내는 죽고 만다.

용태는 성삼이네 집안에서 3대외독자였다.

아들을 잃은 성삼이네 부부는 궂박 이틀동안이나 곡기를 끊고 누워있었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정책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형상을 통해서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악랄성과 죄악성을 폭로비판하고 반일의식을 고취하고있다.

소설은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을 정면에서 배격하는 예리한 정치적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고추서기》나 순사부장 《이따귀》 등 개별적인물들의 악행과 관련된 생활세태적인 묘사를 전면에 세우고 풀어나감으로써 검열의 문을 빠져나갈 틈을 마련하고있다. 작품의 제명을 《평범한 이야기》(《항간사》)라고 한데도 이러한 고려가 스며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최인준의 단편소설 《춘잠》 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춘잠》은 누에를 치는 농민의 고통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은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처지를 보여주는데 형상적지향을 둔 작품이 아니다. 소설은 관청에서 내리먹여 할수없이 누에종자를 받아놓고 누에를 치느라고 고역을 치르다가 쓰러지는 한 농촌녀성의 참상을 그리고있다.

누에치기는 조선농민들에게 강요한 일제의 식민지수탈정책의 하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해나가면서 군수산업 등에 필요한 누에고치를 대량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1930년 1월에 평북도에 《잠업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35년 5월에는 누에고치를 원료로 하는 조선의 제사업을 총독부의 감독밑에 두고 제한통제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조선제사업령》을 조작성포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그것을 극악하게 집행해나가기 위해 《조선제사업령시행규칙》을 련이어 발포하였다.

소설 《춘잠》은 바로 1936년에 창작발표되었다. 소설에는 도저히 누에칠 형편이 못되는 농가에 강제로 내리먹여 농민들이 겪는 고통을 극명하게 그려내는데 형상이 집중되고 있다.

비좁은 한칸 살림방에 누에잠박을 놓고 무더운 여름철에 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해 악취가 들어차고, 뽕을 구하느라고 로악한 몸으로 들로, 산으로 헤매고 ...이런 악조건에 시달리다가 녀인은 한달만에 병을 만나 기절해 쓰러진다. 이것이 소설의 기본내용이다. 작가는 누에치기로 당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그리면서 《못놓겠노라고 굳이》 거절했으나 《못하겠으면 면에 갔다주라고》, 《구장어른이 호령하다싶이 내쫓는 바람에 그만 어쩔수없이 그대로 받았다.》고 강제로 누에치기를 내려먹인 일제식민지락탈정책의 악랄성을 사실그대로 밝히고있다.

소설에서는 농민들의 처지에는 아랑곳없이 원료수탈에만 피눈이 되어 날뛰는 일제식민지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내비치고있다.

누에치는것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하도록 진저리가 쳐지는 일이다.》 《어머니의 희미한 그러나 어떤 무서움에 젖은 눈동자속에서 보는 사이에 갑자기 커가는 누에가 몇곱, 몇십곱, 몇백곱 나중엔 큰 불가사리처럼 커져서 자기에게 덤벼드는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고 후닥닥 방문을 차며 뛰쳐나갔다.》 《이 일이 있는 후로 어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아주 누에에 지친 모양이었다.》

소설에 묘사된 누에에 대한 녀인의 공포, 그것은 누에치기를 강요하는자들에 대한 공포이고 저주이며 일제식민지정책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고 규탄이다.

또한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 반일의식은 인물들의 성격에 적지 않게 구현되어있다.

작품에서 작가의 주장과 지향정신은 기본적으로 인물의 성격에 구현된다. 이 시기 작가들은 인물들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그의 성격에 반일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모로 고심어린 탐구를 하였다.

발표된 소설들을 보면 어떤 작품들은 인물의 성격형상자체가 반일의식을 성격의 필수적요소로 한것도 있고 성격자체는 반일의식이 필수적요소로 되어있지 않지만 거기에 반일적성격을 부여해준 형상도 있다.

이 시기 인물형상에 반일의식을 구현한 소설들에는 긍정인물을 반일의식을 지닌 인물로 형상한 작품과 부정인물을 친일분자로 형상한 작품들이 있다.

긍정인물의 형상에 반일의식을 구현한 작품으로는 중편소설 《정열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엄홍섭의 중편소설 《정열기》(잡지 《조광》 1936. 11~1937. 2. 편재)와 그 속편인 《명암보》(잡지 《조광》 1938. 3~1938. 8. 편재)는 무산학원에서 가난한 농촌아동들을 위해 자기를 바쳐가는 성실하고 정열적인 교육자를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에서 주인공 영세는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육자로, 무산아동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깡그리 바쳐가는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인간으로 그려졌다.

영세는 무산학원학생들의 기를 돋우고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교내운동회를 계획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다가 코피도 쏟고 몸이 아파나는것도 참아가며 정력적으로 노력한다.

그는 월사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을 수업에도 참가시키지 않고 집으로 쫓아보내는 박

원장의 횡포도 막아나신다. 또 돈이 없어 학교를 중퇴한 경숙이가 한밤에 주인의 폭행을 피해 찾아왔을 때에는 자기의 방도 내주고 집으로 갈수 있도록 기차표도 사주는 등 주머니의 푼전까지 깡그리 털어내여 도와준다.

영세는 원장의 모략으로 애인인 채선생을 부호에게 빼앗기는 가슴아픔과 정신적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저앉지 않으며 학생들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량심을 지켜 깨끗하게 살아가는 진보적인테리, 이것이 소설에 그려진 영세의 형상의 기본내용이다.

이러한 영세의 성격속에 작가는 반일의식을 구현하고있다.

그것은 소설에서 일제의 강요에는 아랑곳없이 늘 조선말로 수업을 하다가 우에서 시학이 교육참관을 내려올 때만 일본어로 교육을 하곤 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그린데서 표현되고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강점 첫 시기에 벌써 일본어를 《국어》로 선포하고 관공서와 재판소, 학교들에서 공용어를 일본어로 하며 조선말을 못 쓰게 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기 교단에서 영세는 수업을 전부 조선말로 하며 검열을 당할 때만 일어를 쓰는것이다. 영세는 자기뿐만아니라 함께 일하는 채선헤교원도 《교수용어전부를 조선말로》하도록 영향을 준다. 소설에서는 수업도중에 시학이 교수참관을 들어오자 선헤가 《갑자기 용어를 달리한것으로 불의에 교수전반에 이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놓고 영세가 걱정을 하는 장면을 력점을 찍어 그려보이고있다.

이러한 묘사는 영세의 형상에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 민족말살책동에 맞서나가는 반일정신을 부여하고있다.

작가는 그가 평안도 어느 한 공립보통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불온한 사람들과 사권 일이 있는것으로 권고사직당한》 인물이라는 설명을 주어 량심적인 참된 교육자 영세를 반일적경향을 가진 인물, 나아가서 반일적인 활동에 참가한 일이 있는 인물로 내세우고있다.

소설에서는 학원의 소사인 문서방의 성격속에도 반일의식을 특색있게 구현하고있다.

문서방은 비록 글한자 모르는 사람이지만 학원의 크고작은 일을 다 맡아 돌보면서 무산아동들의 교육사업에 몸바쳐 일한다.

그는 운동회준비도중에 함께 일하던 강선생이 사직하여 영세가 맥을 놓고 주저앉으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회는 해야 한다고 고무하면서 말 안 듣는 남학생들을 자기가 봐주겠다고 힘을 주며 춤련습을 하는 녀학생들이 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소리를 치면서 바로 하도록 닦아세운다. 녀학생들의 춤훈련에 대한 지도가 걸려 운동회준비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보육학교 졸업생인 마을처녀 채선헤를 찾아내여 련습지도를 맡게 하며 후에는 그를 학원 교원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후 영세와 채선헤가 서로 사랑한다는것을 알게 되자 학부형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학원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도록 일을 적극 추진시키며 돈에 환장이 된 원장이 채선헤를 부호의 제물로 들이밀 때 그것을 제지시키고 일을 바로 돌려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한다.

문서방은 50평생 홀아비로 이 동네에서 고스란히 늙어오면서 누구네 집이나 술도 걸어주고 방고래도 파주고 상가집의 시신은 다 제손으로 감장하고 마을에서 생기는 일을 도맡아해주는데 그것도 바로 《이 학교 하나 살리려는 생각에서 그러》는것이다.

그의 모든 생각, 모든 걸음걸음은 다 학원을 위한것이다.

《내 낫놓고 기옥자 모르는 일자무식쟁이이지만 학교 하나 살리고싶은 맘만은 어떤놈도 못 당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그의 이 말은 깊은 공감을 가지고 독자들의 마음에 안겨온다.

이렇게 문서방은 학원일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쳐가는 근면하고 헌신적인 인간이다.

소설에는 문서방이 어떻게 되어 그토록 무산아동교육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가 하는 성격적기초, 그 헌신을 낳게 한 사연이 밝혀져있지 않다. 소설에는 문서방의 과거경력에 대한 묘사나 설명이 주어지지 않고있다. 다만 문서방의 대사속에 《30년전만 해도요, 내가 기병상등병이었어요. 말을 타구요, 하줄 수백명을 거느리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한숨에 내달리던 시절이 있었어요.》라는 한마디가 있을뿐이다. 대사속에 스치는 말처럼 주어졌지만 소설에서 문서방의 과거를 밝히는 유일한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작가가 내놓고 전개할수 없었던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

30년전이면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조선군대가 강제해산되기 이전이다.

1905년 《을사5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조선을 그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로 2년후에는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렸다. 당시 격노한 조선군사들은 치욕적인 해산령에 분연히 항거해나섰으나 너무나도 힘이 약했던 탓에 비참하게 진압당하고말았다.

그때 수백명의 기마병을 거느리던 문서방은 그 분통한 일에 이를 갈며 기어이 힘을 길러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한생을 바치리라 결심했을것이다. 민족의 장래인 후대들이 일제의 노예교육을 받아 식민지노예로 되는것을 막고 그들의 심장에 민족의 녀을 심어주기 위한 일에 자기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는 문서방의 깨끗한 마음과 헌신은 바로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그러한 뼈아픈 체험과 결심을 떠나서는 한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홀아비로 늙어가며 가난하고 짓밟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바치는 그 헌신의 세계를 설명할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가난하고 짓밟힌 조선어린이들을 옹바로 키우는 일을 계속하려는 그 불굴의 지향과 의지도 이로써만 이해가 되는것이다.

소설에서는 문서방을 학원일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쳐가는 근면하고 헌신적인 인간으로 그리면서 그가 해산당한 조선군대에 복무하던 사람이라는것을 한마디의 대사로 주어 그의 활동전체에 반일적인 색채를 부여하고있다.

부정인물의 형상에 친일적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반일의식을 구현한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인간문제》(《동아일보》신문 1934. 7~1934. 12. 연재), 《상록수》(《동아일보》신문 1935. 9~1936. 2. 연재), 《고향》(《조선일보》신문 1933. 11~1934. 9. 연재), 《황혼》(《조선일보》신문 1936. 2~1936. 10. 연재) 등과 같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부정인물의 친일적성격은 일제식민지통치기관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인물로, 말하자면 일제식민지통치기관의 《신임》을 받는 친일《유지》로 설정된데서 두드러진다.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문제》에서 정덕호의 형상이 그의 대표적실패이다.

정덕호는 악착한 착취자,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부화방탕한 패덕한으로 그려졌다.

지주 정덕호는 남달리 부지런한 소작인 개똥이가 1년내내 피땀흘려 거두어들인 벼 열닷섬 닛말중에서 한섬만 남기고 열넉섬 닛말을 타작마당현장에서 장리빔으로 앗아내며 20년

이나 부러먹을대로 부러먹은 어질고 순박했던 선비의 아버지를 단돈 1원때문에 미친듯이 때려 죽게까지 만들고도 그의 딸 선비앞에서 《인정깊은 아버지》로 행세하며 그의 정조까지 유린하는 야수이다. 소설에서는 이처럼 정덕호를 극도로 파렴치하고 추악한 패덕한으로 형상하고 그에게 면장의 감투를 씌워놓았다.

해방전 면장은 일제식민지통치의 말단지방행정기관이었던 면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철저한 친일분자이다.

소설에는 정덕호가 면장으로서는 활동하는 내용은 그려진것이 없다.

형상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그를 면장으로 설정한것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쓰레기들은 다 일제를 등에 업고 온갖 악한짓을 다 하는자들임을 까밝히고 일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증오와 규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자는데, 인민들속에 반일의식을 고취하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고향》에서 안승학의 형상도 같은 실례이다.

장편소설 《고향》은 1920년대말 농촌을 사회적배경으로 하여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과 대증적인 소작쟁의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에서 농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하나로 묶어세워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이끄는 주인공 김희준을 비롯한 긍정인물들과 대립되어있는 기본부정인물은 마름 안승학이다.

안승학은 소설에서 만사람이 혀를 차는 지독한 수전노로, 비열하고 추잡하며 모략과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패덕한으로 성격화되었다. 이러한 안승학에게 작가는 친일적특질을 부여하고있다. 그런데 《인간문제》의 정덕호처럼 친일관료의 감투를 씌우는 식으로가 아니라 성격자체에 친일적색채를 주고있다.

소설은 앞부분에서 《마름집》, 《출세담》이라는 소설들을 설정하고 이전 아전의 자식인 안승학이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들 때 재빠르게 일제에 붙어 군 고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출세》하여 《새 량반》이 되었다고 그의 친일행적과 성격적특질을 밝혀주고있다.

그리고 소설의 환경전개부분에 해당되는 첫절 《농촌점경》에서는 마을농민들이 다 떠약별이 내려쬘이는 별판에 나가 일할 때에 서늘한 사랑마루의 의자에 앉아 슬슬 부채질을 하며 졸고있던 안승학이 일제의 순사가 나타나자 맨발로 달려나가 황겁하게 맞이하는 비굴하고 아첨기 넘치는 모습을 인상이 질게 그려 그의 친일적성격을 강조해주고있다.

장편소설 《황혼》에서는 부정인물 안중서의 형상에 친일적성격을 주고있다. 소설에서 안중서는 일제에 붙어 살아가는 예측자본가로 그려졌다. 작가는 안중서를 돈과 리운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혹무도하고 파렴치한 자본가로, 교활하고 후안무치하며 패덕적인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그리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기화로, 일본 재벌에게 붙어 졸부가 되고 일제식민지당국의 조종으로 일본에 가서 공장들을 돌아보고 그대로 《산업합리화》를 하려고 날뛰다가 로동자들의 항의에 부닥치자 경찰에 전화를 거는 인물로 친일적성격을 뚜렷이 해주고있다.

뒤집기수법을 적절하게 활용한 소설도 있다.

뒤집기는 창작가들이 흔히 쓰는 형상수법이다.

너류작가 강경애는 중편소설 《소금》(잡지 《신가정》 1934. 5~1934. 10. 편제)에서 이 수법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 시기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두드러지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편소설 《소금》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룡정부근에 자리 잡은 한 녀인이 겪는 참혹한 불행으로 엮여져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무서운 생활고속에서 두 딸마저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소금을 팔려했다고 경찰에 잡혀가는 녀인의 비극적운명이 소설의 전 화폭을 채우고있다.

그러나 소설의 지향은 간도땅에 쫓겨온 조선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보여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소설은 처음 충을 든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활동을 주인공의 가정의 운명과 결부시켜 묘사하는것으로 시작되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있던 주인공이 마감에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성격전환이 일어나는것으로 맺어지고있다.

소설의 기본사상적지향은 무장을 든 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에 대한 옳은 인식을 안겨주는데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힘있게 벌어졌고 그것은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미쳤다. 극도로 당황망조한 일제는 마을마다 《보위단》, 《자위단》들을 설치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한편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인민들속에서 그들에 대한 영상을 흐리게 하려고 미쳐날뛰었다.

항일유격대에 대한 뜨거운 동경의 감정을 품고있던 강경애는 이러한 파렴치한 비방중상을 참을수 없었으며 자기 작품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진실을 깨우쳐줌으로써 이 나라 작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의 참모습을 그린 소설을 검열의 망을 뚫고 공개출판물에 발표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부터 작가는 일제의 비방선전에 기만당한 녀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의 시각에서 항일유격대에 대한 서술을 끌고나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 주인공의 성격전환을 주고 항일유격대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는 수법을 취하였다.

소설은 첫 부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활동으로 하여 지주와 《보위단》이 도시로 쫓겨가고 일제가 공산주의자들의 진출을 막아보려고 《자위단》을 설치하던 현실을 묘사한 다음 지주 광동에게 불리워갔던 봉염 아버지의 돌연한 죽음으로 사건을 펼친다.

어머니는 광동과 《자위단》의 말대로 공산주의자들이 남편을 죽인것으로 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체를 업어온 아들 봉식은 그길로 집을 뛰쳐나가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하여 원쑤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다. 여기에서 작가는 공산주의자들이 봉염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에 의문표를 던진다.

그러나 봉염 어머니는 똑똑한 봉식이 아버지 죽인 원쑤의 편에 들어갈수 없다고 부정한다. 항일유격대를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는 일제의 악선전에 넘어간 봉염 어머니의 정신상태는 그대로 이어진다. 잡지 《신가정》에 6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의 5회분까지는 이런 상태에서 주인공의 비참한 처지가 펼쳐진다.

혈불이름 다 잃고 홀로 남은 주인공은 아들을 만날 희망으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소금밀수인들을 따라나섰다가 밤중에 산속에서 충을 든 공산주의자들을 만난다. 일제의 날조된 악선전에 물젖어있던 봉염 어머니는 죽음의 공포에 떨다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가슴아파하며 원로에 잘 다녀가라는 따뜻한 인사까지 하면서 바래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

고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머니는 비로소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자기와 같은 가난한 조선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것을 깨닫게 되며 마지막에 경찰에 소금집을 압수당하고 붙잡혀갈 때는 자기를 구원해줄 사람은 밤중에 산속에서 만났던 그들뿐이라고 굳게 확신하게 된다.

무난하게 소설을 내보내던 일제의 검열당국은 이 대목에 와서 마지막 12개 행에 마구 먹칠을 했으나 붓질사이에서 살아남은 몇개의 글자로 독자들은 그 내용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이리하여 동성서격과 같은 뒤집기수법에 의해 일제의 비방증상을 뒤집어엎고 항일유격대의 참모습을 확인하는 귀중한 형상이 사람들의 가슴에 안겨질수 있었다.

풍자적수법을 리용하여 반일의식을 구현한 작품들도 있다.

풍자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이다.

풍자적수법은 풍자대상을 내세우고 외견상 추어주는채 하면서 그의 추악한 정체를 고발하고 날카롭게 규탄하는 특성으로 하여 반동공세에 대처하는 진보적문학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어왔다.

1930년대 진보적소설가들은 현실에 대한 적대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비판하기 힘들어진 조건에서 풍자적수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일의식을 구현하는데 힘을 넣었다.

대표적으로 채만식의 장편소설 《천하태평춘》(잡지 《조광》 1938년 7월호), 단편소설 《치숙》(《동아일보》신문 1938. 3. 7일호) 등을 들수 있다.

장편소설 《천하태평춘》은 정축년(1937) 9월 어느날 저녁나절부터 다음날 아침나절까지 웅근 하루동안 백만장자 윤장지의 집에서 벌어진 세태적인 이야기를 엮은 작품이다.

소설은 윤장지의 하루일과에서 벌어지는 사소하고 평범한 신변세태적인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서 풍자의 기본대상은 윤장지이다.

소설에서 백만장자 윤장지는 배스를 탈 때는 잔돈도 있지만 10원짜리 지전을 내는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후안무치한 린색한으로, 15살의 동기 춘심이를 사이에 놓고 증손자녀석과 신경을 곤두세우며 《로소동락》을 하는 타기할 패륜패덕한으로 그려졌다.

작가는 윤장지의 이러한 풍자적형상속에 친일적인 면모를 부여하고있다.

소설에서 윤장지는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하는 일제를 구세주처럼 떠받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인물로 그려져있다.

윤장지는 농촌에 방대한 소작토지를 가진 만석군인 동시에 서울에서 고리대를 하는 백만장자이다.

그는 지난날 농민폭동자들과 그후에는 독립군들에게 돈을 앗기고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온 부호로서 농민봉기군들이나 독립군들을 진압한 일제를 《은인》으로 여기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관리하며 순사를 우리 죄인으로 많이 내보내여서 그 송악한 부랑당놈들을 말끔 소탕시켜주구 그래서 양민들이 그 덕에 편히 살지를 앓녕가?》라고 하며 일제에 대한 감사의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윤장지의 친일적성격은 경찰서장이 되라고 일본으로 법률공부를 보낸 둘째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일본경시청에 체포되었을 때 보다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둘째손자 종학이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윤장희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른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 수십만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죄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것 가지구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하는것이어, 태평천하! ...〉》

윤장희는 이 태평천하를 반대해나선 종학이놈은 죽여두 아깍잖을 놈이라고, 백년징역을 살리라고 경찰서에 편지하겠다고 펄펄 뛰면서 그놈한테 넘겨주려던 재산을 다 털어 그런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 주어버리겠다고 사납게 부르짖는다.

풍자대상인 윤장희의 이 대사들은 조선강점을 합리화하는 일제의 궤변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된다.

작가가 이무렵 내놓은 단편소설 《치숙》에서는 일본인집 심부름군으로 있는 주인공 《나》가 대중을 위해 몸바쳐나선 아저씨를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일본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 좋게 지내야 한다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엮여져있다.

《나》는 친일의 길에서 안락의 길을 찾는다.

《나》는 장가도 《내지》녀자한테 들고 성명도 집도 옷도 법도 다 《내지인》식으로 하고 아이들의 이름도 《내지인》의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학교에 보내고 《나도 조선말을 싹 건너치우고 국어만》 써서 《내지인》들처럼 돈을 모을것을 리상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일제가 강요하는 《황민화》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다.

소설에서 어리석은 인간인 《나》의 입으로 주장된 이 《리상》은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 그자체에 대한 예리한 풍자로 된다.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 반일의식은 이외에도 적절한 장면이나 세부들을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방법, 부정인물의 대사를 반증적으로 리용하여 반일의식이 강렬하게 담겨진 내용을 통쾌하게 쏟아내는 방법 등 다양한 형상방법으로 구현되고있다.

작가들의 피끓는 애국의 마음과 창조적지혜가 깃든 이러한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씌여진 소설작품들은 수난을 겪던 인민들에게 반일민족의식과 투쟁의지를 북돋아주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민족수난기문학을 특색있게 장식한 귀중한 재부로 되었다.

실마리어 소설문학, 반일의식, 형상수법